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3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원문]

구족신통력(具足神通力) 광수지방편(廣修智方便) 시방제국토(十方諸國土) 무찰불현신(無刹不現身) -신륵사 극락보전

[번역]

부처님은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와 방편을 널리 펴서 시방세계와 전 국토 어느 곳이든 그 몸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네.

[신해(釋解)]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삶의 해방감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번쯤 찌든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것도 좋으리라 싶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것은, 보다 나은 삶과 정신적 안락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종교는 이념과 구도를 넘어서서 한 개인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오래 살기 위한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장수를 누리려는 것은 오복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심의 대상이다. 오래 산다는 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법칙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불, 대개 장수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자신의 행편과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섭생을 조절하며 산 사람들이었다.

백 년 전 영국의 유명한 의학자가 있었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가족을 모아놓고 밀봉한 상자를 건네주며 유언을 남겼다.

“이 상자 안에는 내가 평생 동안 연구한 ‘무병 장수의 비결’이 들어 있다. 하지만 지금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입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 열쇠를 건네주어라.”

그 후 몇 년이 지나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돈이 많은 부호로서 당대의 부자였지만 몸이 병약해 고만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유명한 의학자가 장수의 비결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 보기 전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고인의 기념사업과 의학발전을 위해 내놓을 테니 그 유언상자를 양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상의 끝에 고인이 말한 상자의 입자가 바로 이 사람임을 알고 열쇠를 주었다. 마침내 상자가 열리게 되자 많은 사람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부호는 겹겹이 싸인 흰 보자기 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일생을 바쳐 의학 연구를 하여 얻은 장수에 대한 비결은 오직 다음 한 구절에 불과하다. 모든 병의 원인은 음식을 잘못 섭취하는 것에 연유한다. 그러니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고 잘 씹어 먹어 위가 언제나 만족이 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대로 실천하면 만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이 불로양생을 찾기 위해 헛되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부처의 모습으로 보면

집착과 번뇌 사라져 항상 ‘부처 마음’으로 살아

많은 돈을 들여 유언상자를 사들인 부호는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실천하여 그 후 건강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무병장수의 비결은 이처럼 쉽고도 가까운데 있다. 사람의 템플스테이를 찾아가 보면 소식하는 소육지족의 삶을 통해 어쩌면, 오래 사는 비결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오늘의 주변여행으로 들어가 보자. 여주 신륵사는 아름다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천년 고찰로서 중요문화재인 보물이 많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승지다. 아마도 부처님을 주존으로 모신 극락보전은 조선 후기 건물이다. 양식적으로 보면 앞면과 옆면 각 세 칸의 팔작지붕으로 자연석의 주춧돌 위에 올림기둥을 세우고 다포식 공법으로 지었는데 극락보전의 주련은 근대 서예가인 성당(�澄堂) 김돈희(金敦熙)의 글씨다.

극락보전 앞 다층석탑(보물 제225호)은 조선 초기의 탑으로 탑 몸체 사면에 구름무늬와 용무늬가 새겨져 있는 뛰어난 대리석의 조각품이다. 조사당에 모셔져 있는 석종부도(보물 제228호)는 나옹 선사의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봉 모양을 닮았다. 석종비(보물 제229호)는 나옹 선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비문은 목은 이색(李穡)이 짓고 한유(韓愈)가 글을 썼으며 이인중이 새겼다고 한다. 또한 석등은 팔각 기단부 위에 팔각의 화사석과 옥개를 얹고 그 꼭대기에 보주를 올렸다. 각 우주에는 용

을 양각하였고, 각 면에는 선(線)을 나타낸 창문이 여덟 개 있으며 창구(窓口)마다 비천상이 있다. 석등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연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색은 나옹의 비문에서 ‘보리의 몸은 이미 화장을 하였건만 강물과 달은 지난날과 다름이 없구나. 이제 신륵이 장강에 임하여 있고 석종이 거기에 우뚝 솟아 있어 달이 뜨면 그림자가 강에 거꾸로 걸려있고 물빛은 등불 빛 같고, 무럭무럭 떠오르는 향기만 그 속에 엉겼으니 이른바 강월현이로다. 비록 한없는 세월이 흐르다 해도 마치 보리가 살아있는 것만 같구나’ 하고 읊었다.

신륵사 극락보전에 새겨져 있는 주련의 의미는 위대한 부처님의 신통력을 한 눈에 보여 준다. 원래 부처님의 방편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 그럼 부처님의 방편이란 무엇일까?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는 뜻이다. 사람은 내가 가진 마음이 부처인데 이를 자신이 잘 다스리지 못해 마라(魔羅)가 되고 만다.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네’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인간사는 한결같이 호시절이 되리라’고 했던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신통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다. 이와 달리 인간이 괴롭고 힘든 것은 오직 자신이 지어내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시비·분별을 일삼음으로써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처의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로 가슴을 울리는 진리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부처님은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느 곳에서든 있다. 저녁에 바라보는 달빛, 별빛은 물론, 길을 가다 만나는 풀꽃조차 모두 부처이며 또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남편과 아내, 자식, 친구들도 모두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부처가 되면 내가 만나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부처가 되고 내가 마귀가 되면, 그들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부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신륵사 극락보전에 새겨져 있는 주련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3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원문]

此心是佛 人皆欲得見 於此光明中 運手動足者 如恒河沙 及乎問着 搥道不得 猶如木人相似 搥是自己受用 因何不識 佛言一切衆生 盡是迷人 因此作業 墮生死海 欲出還沒 只爲不見性 衆生若不迷 因何問着 其中 無有一人 得會者 自家運手動足 因何不識 故知 聖人語不錯 迷人自不會故知 此心難明 惟佛一人 能會此心 其餘人天衆生等 盡不明了 若智慧 明了此心 方名法性 亦名解脫 生死不拘 一切法 拘他不得 是名大自在 王佛 亦名不思議 亦名聖體 亦名長生不死 亦名大仙 名雖不同 體即是一.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자성을 보고자 하나 이 광명 가운데서 수도 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를 못하니 허수아비와 같구나. 모두 자기가 경협하고 활용하면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중생들은 모두 미혹하여 업을 지으므로 생사의 바다에 빠지며, 나오려 하지만 도리어 빠지는데 그 이유는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중생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어찌하여 물어 볼 때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그러므로 알지니라.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알지니라. 이 마음을 밝히기가 어려워 부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의 중생들은 분명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이 마음은 밝히기가 어렵다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하시고 ‘나는 법을 설하지 않았다’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업을 맑고 성품이 드러나야 느끼는 것이지 말로나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자리

에 대해 말씀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니,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 헤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혜로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眞性)이라 하고, 헤탈이라 한다’ 그 할 때의 ‘지혜’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오온에서 벗어났으면 부처라 하고 헤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정진해서 오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온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그대로 할 수 있으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경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대자재왕이요, 좋다 나쁘다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며, 나고 죽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장생불사라 하며 우주를 하나로 한 몸으로 쓰니 대선(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분별 하느냐입니다.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고 보면 그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따로 부처를 구한다면 영원히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중생의 삶이 미혹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며, 생사가 없는 도리를 모를 때 또한 미혹의 삶이 됩니다.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고 경계에 떠달려 가지 않으면 반야의 삶이지만, 형상이나 소리로서 진리를 구한다고 하면 도리어 윤회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그것은

이름입니다. 본래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어찌하여 물어 볼 때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이 말씀은 사람의 동작이 다 ‘부처 작용’인데 어찌하여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을 밝히기가 어려워 부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의 중생들은 분명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이 마음은 밝히기가 어렵다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하시고 ‘나는 법을 설하지 않았다’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업을 맑고 성품이 드러나야 느끼는 것이지 말로나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자리

에 대해 말씀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니,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 헤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혜로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眞性)이라 하고, 헤탈이라 한다’ 그 할 때의 ‘지혜’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오온에서 벗어났으면 부처라 하고 헤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정진해서 오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온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그대로 할 수 있으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경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대자재왕이요, 좋다 나쁘다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며, 나고 죽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장생불사라 하며 우주를 하나로 한 몸으로 쓰니 대선(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일 대이소우(1912~1926년)시대 ‘번역 달마도’(鳥根縣立미술관 소장)

[해설]

볼 수 없는 부처님의 실상자리를 사람들은 모두 보려 애쓰지만, 이 광명 가운데서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따로 보려고 하기에 ‘사람들은 이 광명 가운데서 수도 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달마 대사는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부처(법신) 아닌 게 없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대로가 부처인데, 따로 부처가 있다고 찾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존재가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한방 (韓方) 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학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취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제),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대한취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용: 범패: 거불/복청계/가영/향수내열/도량계/다계작법, 작법무: 천수바라/사다라니/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교육원장 해룡 큰스님 (무형문화재 9호), 교수\_보암 스님, 전문강사\_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굶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감삼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 한의원, www.jasaengcho.com, TEL 053)746-0075, 위치: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오백(황금점)옆